

## 충남의 도시3\_ 홍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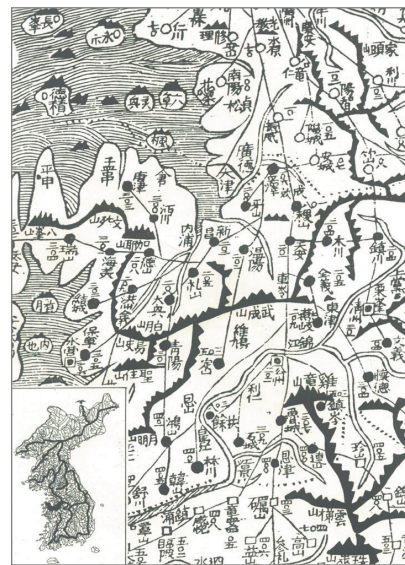
Hongseong-Gun



조선시대 충청우도의 으뜸 고을인 홍주(현 홍성)는 공주와 함께 현 충청남도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중심지였다. 그러나, 해로에서 육로로의 교통수단의 변화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로 인해 소외되면서 쇠퇴하게된 홍성은 이제 서해안 시대의 도래와 내포문화권의 개발로 새로운 문화·환경도시로서 도약하고 있다.

## 홍성의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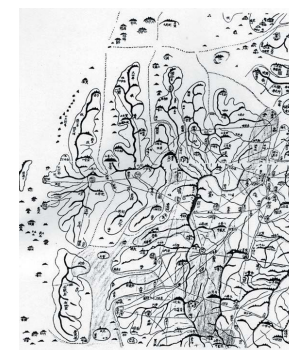
신라 말부터 20세기까지 홍성은 내포의 내륙과 섬들을 통괄했던 거점 고을로서, 북동 방향으로는 삼교천을 따라 아산만에 접근이 용이하였고, 남서방향으로는 광천 등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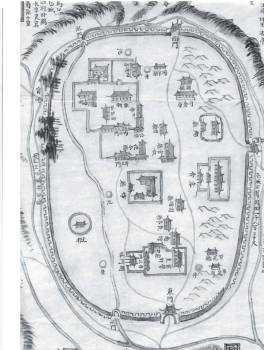
금북정역(金北正域)에 나타난 홍주(홍성)

통하여 천수만에 접근이 용이하여 조선시대에는 서부지역 지방행정의 중심지, 군사적 요충지로서, 근대에는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는 전투의 중심지로서 치열한 의병운동이 전개하는 중심지였다.

역사문화적 의미에서 홍성은 조선시대 서부지역 행정의 중심지, 서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 義문화의 중심지, 호국·충절인물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상의 홍주



조선말 홍주읍성지도



최영 영정



성삼문 영정



김복한 영정



김좌진 영정



한용운 영정

개항 후에는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원(189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검찰지정(1909) 등이 설치되어 행정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홍주군과 결성군이 합쳐져 오늘날에 홍성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변화는 해로의 쇠퇴와 함께 육로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공업화과정에서 경부축을 중심으로한 천안-(청주)-대전축의 개발은 내포의 중심지인 홍성군세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접근성의 개선 및 지역산업 활성화, 2003년 소도읍 육성도시로의 선정,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추진으로 홍성은 서해안시대 내포문화의 중심도시로 응비하고 있다.



## 충남의 도시3\_ 홍성군

Hongseong-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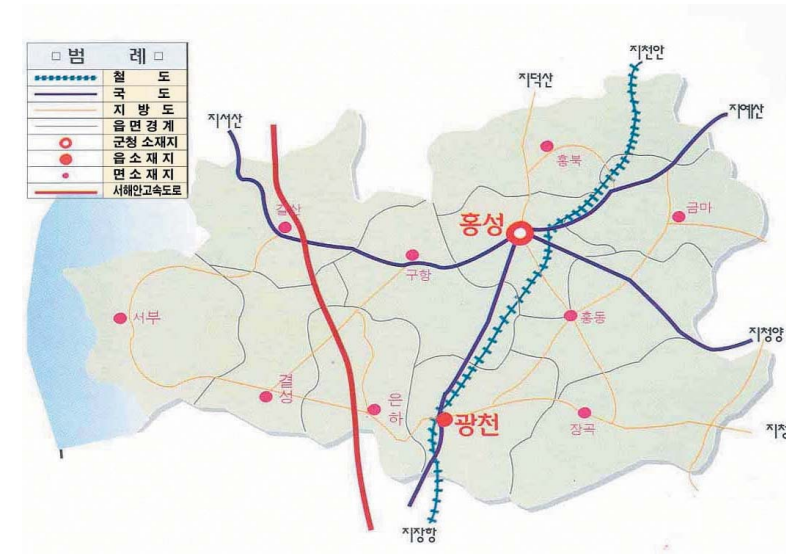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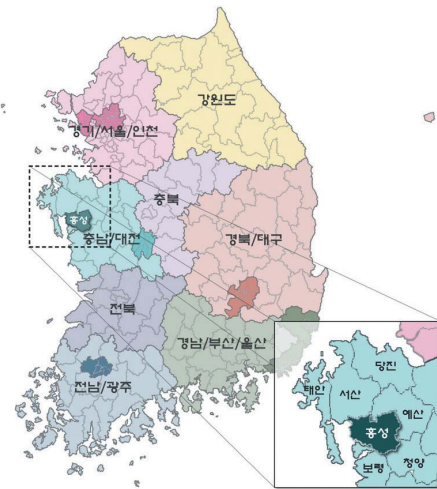
### 홍성의 일반현황

홍성은 국토공간상 충청남도 서해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북쪽에 예산군, 서북쪽에 서산시, 남동쪽에 청양군, 남쪽에 보령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국도21호(보령~천안), 국도29호(서산~청양), 지방도609호, 장항선 등의 광역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상 면적은 443.59km<sup>2</sup>로 2읍(홍성읍, 광천읍) 9면(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성군에서 읍면별 위치를 보면 동단에 장곡면, 서단에 서부면, 남단에 광천읍, 북단에 홍북면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서간이 29km로 남북간 23.5km로서 동서방향 이 남북방향보다 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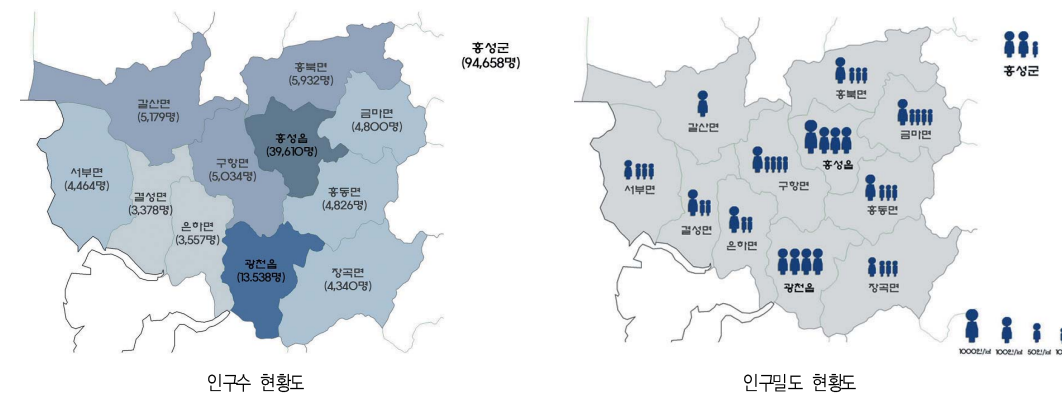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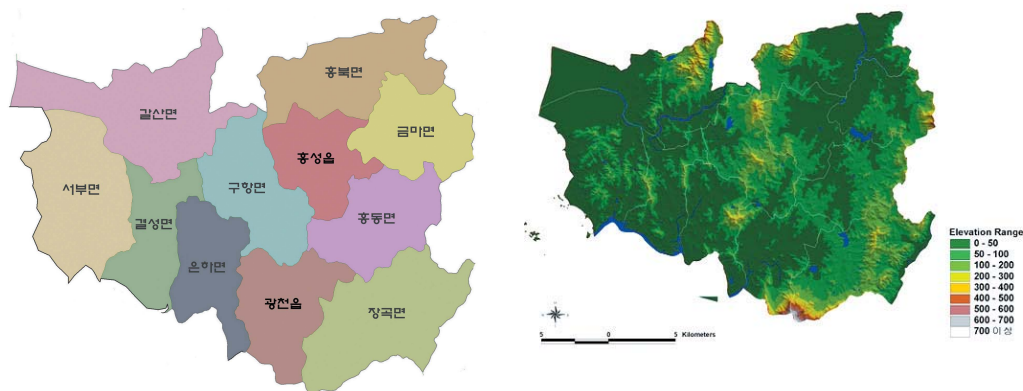
군의 지형지세를 보면 북쪽으로는 용봉산, 서쪽으로는 봉수산, 남쪽으로는 오서산이 입지하고 있으며, 산악과 구릉으로 연결된 지대 외에 금마천 주변을 따라 평지를 형성하고 있다.



홍성군 도로망 체계도

홍성군의 총 인구는 2003년 현재 94,658명으로 충남 총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 99,088명에서 2003년 현재 94,658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0.91% 인구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1998년~2002년 인구감소추세를 보이다 2003년 증가세로 돌아섬으로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서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군 도시지역 인구는 94,658명이며 33,598세대로서 읍면별 인구밀도는 홍성읍(1,298.7인/km<sup>2</sup>), 광천읍(385.9인/km<sup>2</sup>), 금마면(140.4인/km<sup>2</sup>), 구항면(136.8인/km<sup>2</sup>)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충남 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충남의 도시3\_ 홍성군

Hongseong-Gun

군 산업구조는 지역총생산 기준으로 1차 산업이 47.2%, 2차 산업이 3.0%, 3차 산업은 49.8%를 차지하여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 내에는 정기시장 3개(50,315㎡), 일반시장 1개(4,294㎡), 대형점 1개(9,818㎡) 등 총 5개(65,192㎡)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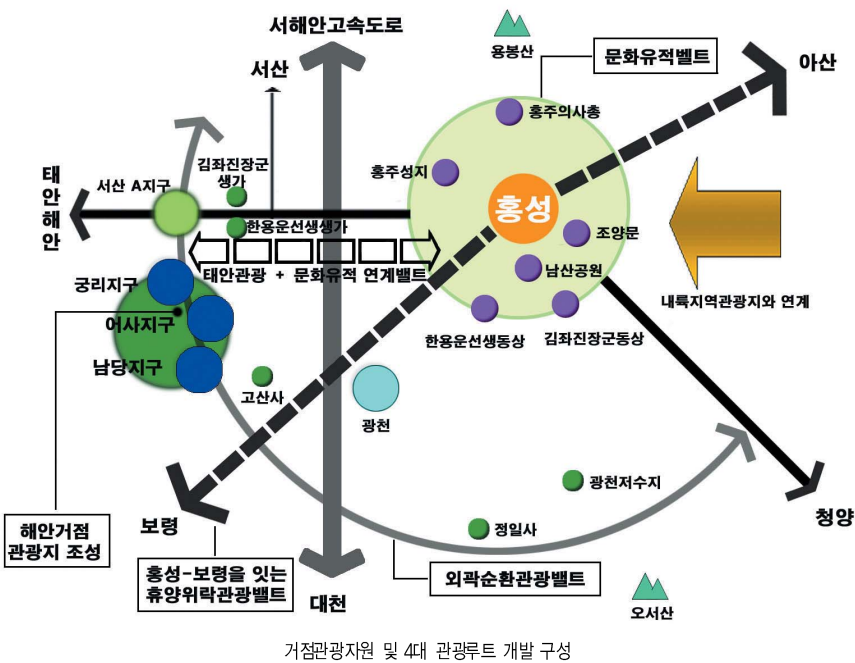
산업단지로는 2003년 현재 홍성군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총 5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60여개의 입주업체와 1,381명이 종사하고 있다. 군내 농공단지로는 구항, 광천, 은하 등 3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32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홍성은 과거 내포의 역사도시로서 다양한 역사자원과 인물을 보유한 곳으로서 현재 군내에는 총45점의 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속·자연경관·관광자원들이 있으며, 대하축제, 새우젓·조선김축제, 만해제,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 기념 및 한우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기반을 바탕으로 2003년 현재 외부로의 홍성군 관광수요는 1,577천명으로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개년 동안 연평균 1.2%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 문화관광자원 분포 현황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군 내에 입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홍주성, 애국·충의인물, 민속 등)과 해양관광지구(공리·어사·남당지구)를 거점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거점자원간 교통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하여 홍성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4대 관광루트(역사문화유적, 해양거점, 특산물, 산악 자연휴양 등)를 개발할 예정이다.



거점관광자원 및 4대 관광루트 개발 구성

전통문화와 청정환경을 살려 새롭게 도약하는 문화·환경도시, "홍성"

2003년 육성 소도읍으로의 선정된 홍성읍은 지역의 거저소도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홍성읍 육성전략으로서 21C 문화의 세기를 선도하는 전통문화관광도시, 쾌적한 정주환경과 맑고 푸른 전원도시, 활력있게 성장하는 상업·서비스 중심도시,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조하는 교육도시로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읍은 장기발전구도로서 4대 거점지역을 개발하고 기존시가지 정비 및 신시가지 조성, 친환경적인 생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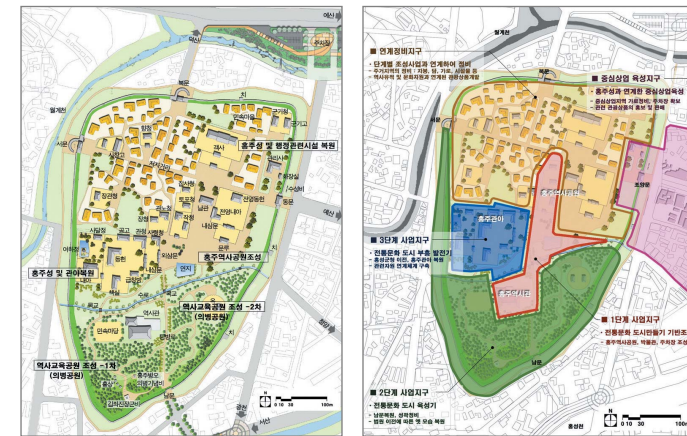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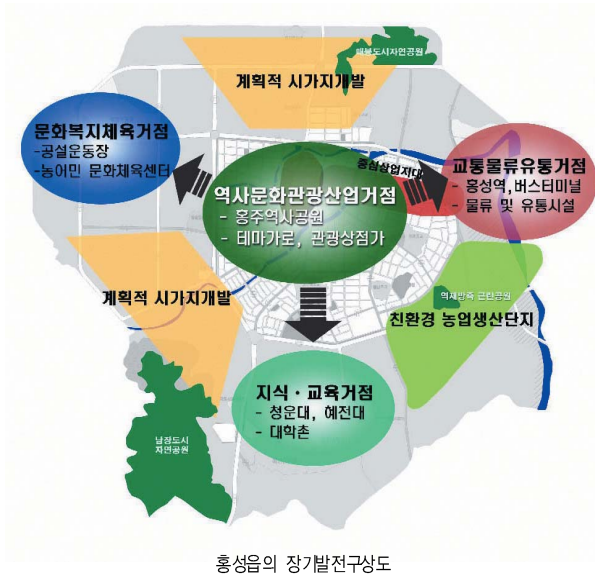


### 충남의 도시3\_ 홍성군

Hongseong-Gun

홍성읍의 종합육성을 위해서 1단계(초기3개년:03~05)에는 홍주역사공원 조성, 홍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역사문화의 거리 및 도시배후 주차공원 조성, 홍성천 친수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3단계(06~12)로 홍주성 및 관아복원, 중심상업지 환경개선 및 온천지구 개발, 역재방죽공원화, 월계생태하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홍주성 및 관아복원은 과거 행정·군사요충지로 옛 모습을 복원하고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발사업으로서 공공건물의 이전과 주변환경정비,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연계되어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홍주성 복원 및 정비구상

홍주성 및 주변지역의 단계별 정비

이를 위해 군에서는 2005~2025년까지 추진할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하였으며, 1단계(기반조성기)에는 홍주역사공원 조성 및 홍주성 복원계획 수립, 공공기관 이전 착수, 2단계(육성기)에는 공공건물 이전 및 법원터 관아복원, 3단계(부흥기)에는 관아시설물 복원 완료, 4단계(발전기)에는 관아시설물복원완료 및 전통민속마을 조성 등 단계별·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 홍주성 복원 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사업내용	관련내용
기반조성기 2003~2009년	2003~2005 · 홍주역사공원 조성 · 사유지 및 민가 매입(1, 2단계사업지구) · 홍주성 복원 및 문화재정비계획 수립	홍주역사공원
	2006~2009 · 역사공원 조성, · 사유지 및 민가 매입 · 공공기관 이전 착수, · 현존유적 보수	역사공원조성
육성기 2010~2014년	· 공공건물 이전 · 홍주 역사교육공간 조성 · 법원터 관아복원 및 홍주성 주변환경 정비	홍주성 및 관아복원 역사관건립
부흥기 2015~2019년	· 발굴조사 실시 · 목사관련 관아시설물 복원완료 · 행정관련 시설물 착수	
발전기 2020~2024년	· 전영관련 관아시설물 복원 · 객사 및 행정관련 시설물 완료 · 전통민속마을 조성 및 조경 및 주변정비	

